

## 논문상 수상논문 선정을 마치고

강 병 희 \*

한국지반공학회는 학회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서 올해 처음으로 논문상을 시상하였다. 지난해 1월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정인준 본 학회 고문께서 지반공학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논문상을 시상할 것을 제의하시고 이를 위해 10,000,000원을 기증하셨다. 이에 따라 기증자의 뜻을 받아들여 적당한 시기에 논문상을 시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지난해 5월에 마련하였다.

올해가 본 학회 창립 10주년이 되는 뜻있는 해이므로 이를 기념하고 우수한 논문에 대해 시상함으로써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1994년도부터 논문상을 시상하도록 이사회에서 결정하였다.

논문상 수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수상대상논문은 해당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 이내에 본 학회 회지에 게재되고 연구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된 논문이어야 하며 수상논문은 논문상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7인의 회원으로 논문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차례의 회의를 거쳐 1994년도 논문상 수상논문이 선정되었다. 즉 본 학회 회지 제7권 제1호(1991년 3월호)로부터 제9권 제4호(1993년 12월호)에 게재된 총 72편의 논문 중에서 5편의 논문을 1차로 선정하고 이 후보 논문을 정밀하게 검토한 후 제3차 위원회(1994

년 3월 15일)에서 최종적으로 수상논문이 선정되었다

수상논문은 제8권 제1,2호에 게재된 이 인모, 박 경호, 임 충모, 3인의 공동논문으로 산사태 위험도 추정을 위한 간극수압 예측에 관한 연구 (I, II)이다.

수상논문의 내용은 얇은 토층을 가지는 가파른 산사면에서 강우시 발생하는 산사태의 주원인인 지하수위를 예측하기 위해 지하수 유입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몇가지의 흐름모델을 우리나라 산사면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해서 가파른 산사면의 비포화흐름에 대해서는 수정 abcd모델을, 포화흐름에 대해서는 시간지체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선형저수지모델을 이용하여 지하수위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산사태 발생지역의 산사면에 적용하여 모델 매개변수들의 최적치를 구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실용성의 면에서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되었다.

수상논문 이외에도 우수논문이 여러편 있었으나 모두 수상논문으로 선정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올해는 논문상을 처음으로 수상하게 되므로 본 학회 회원들의 연구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훌륭한 우수논문이 더 많이 발표되길 바란다.

\*정회원,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논문상 심사위원장